



국민의당 “총선 승리를 위하여”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선대위 회의에서 공동대표와 상임선대위원장을 대신해 초청된 국민대표들과 총선 승리를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발 물러선 安... ‘야권연대’ 기로

### 통합·연대 불가 고수 속 “후보간 연대는 막지 않겠다” 천정배 “오늘 마지막 회동... 조율 결과따라 행보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당의 야권 연대 찬성 의원들 지역구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후보별 단일화까지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야권의 통합·연대 논의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더민주는 지난 11일 국민의당 김한길 전 상임공동 선대위원장의 사퇴 소식을 듣고 국민의당 연대 찬성 의원들의 지역구에 대한 공천방식 발표를 유보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이날 해당지역에 공천심사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날 발표로 더민주와 국민의당과의 야권연대가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지역별

로 후보자 간에 단일화하는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권표 분열로 패배위기에 몰린 후보들이 자율적으로 단일화를 시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 양당 중앙당 간에도 일정 부분 협의를 거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국민의당에서 통합이나 연대 불가 입장을 고수해온 안철수 공동대표도 최근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을 막을 수 없다”고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그럼에도 통합과 연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가 입장이 확고하다. 그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세돌 9단의 승리를 ‘용기와 신념의 승리’로 평가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권투에서

핵심은 펀치를 버티는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천정배 공동대표와 김한길 의원은 여전히 야권연대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 회의에도 나란히 불참했다.

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15일) 안철수 대표와의 회동을 마지막으로 서로의 의견 조율을 시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임 선대위원장을 사퇴한 김한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총선 승리를 위해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야권 연대를 촉구했다. 그는 “수도권 야권연대로 집권세력의 압력을 저지하는 동시에 야권의 의식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야권연대는 명분을 위해 실리를 양보하지는 주장이 아니다”고 적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野 현역 물갈이 광주·전남 2명뿐... 빈수레만 요란

〈더민주 강기정·국민의당 임내현〉

### 호남 목소리 낼 새인물 부재...야권 변방 전략 우려

#### 총선 프리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대대적인 현역 의원 물갈이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작 광주와 전남에서는 현역 의원 19명 중 단 2명만이 공천에서 배제됐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호남지역 민심이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론이 컸던 만큼 지역정가에서는 각 당의 물갈이 폭이 너무 약해 두 당이 주장했던 변화와 혁신공천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주말께 열리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결과에 따라 현역 공천 물갈이 폭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역 물갈이 여론이 높았던 지역 유권자들이 본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더민주의 공천방식 발표에 따르면 지역 구 불출마를 선언하고 비례대표를 신청한 김성근(여수갑) 의원을 빼면 전남 현역 의원 중 컷오프 대상은 1명도 없다. 다만, 이윤석(영암·무안·신안) 의원만 서삼석 예비후보와 경선을 치르게 됐다.

더민주의 앞서 박해자·강기정 의원 등 광주지역 현역 의원 2명 중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한 북구갑의 강 의원만이 사실상 컷오프 됐으며, 박해자 의원은 송갑석 예비후보와 경선을 벌인다.

국민의당의 현역 의원 컷오프도 임내현(광주 북구을) 의원 단 한명에 그쳤다. 일부 중진들의 불출마 및 함치 출마 등이 그동안 당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흘러나왔지만, 14일 국민의당이 제20대 국회의원 공직후보자 선거 단수 및 경선지역 3차 발표에 따르면 현역 의원들 모두가 경선에 참여하게 됐다. 특히 공동대표와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천정배(서구갑)·박주선(동남을)·주승용(여수을) 의원은 단수 공천됐다. 이 때문에 지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도 호남의 목소리를 담은 정치 세력을 못 키우고, 호남 정치권이 야권 변방이나 중측 구조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4·13 총선 현장

### 이정현, 야 대표에 의대 유치 협조 당부



새누리당 이정현(순천) 의원은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중민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순천의대 유치를 위해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없는 유일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전남”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특히 “두 당은 그동안 호남의 사랑을 많이 받아온 만큼 국회 차원에서 꼭 협조할 것을 간청드린다”고 거듭 압박했다.

### 박주선 “문화전당 주변 면세점 유치할 것”



국민의당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은 14일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친화형 면세점을 유치해 문화와 쇼핑이 한 자리에서 이뤄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특히 “20대 국회에서 문화전당 주변에 오프카를 주 대상으로 하는 면세점을 유치해 문화전당·무등산국립공원·정음성 생가 등을 연계한 관광코스가 세계적 명소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박해자 “통신비 등 생활비 경감책 마련”



더불어민주당 박해자(광주 서구 갑) 의원은 14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치는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정책으로 약속하고 평가 받아야 한다”며 서민행복시대를 앞당길 생활 밀착형 생생(生生) 정책들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표한 정책은 ▲주택법 개정을 통한 아파트 관리비 부담 경감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 ▲유덕동 도시가스 미보급 문제를 해결할 취약지역 생활인프라 조성사업 등이다.

### 김승남 “장흥에 한우팜랜드 조성”



국민의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14일 명품 한우의 보고장인 장흥에 ‘한우팜랜드’를 조성, 관광활성화는 물론 전국 최고의 고품질 명품한우 메카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한우를 기반으로 조성된 정남진 토요시장은 2005년 개장이후 연간 관광객 60만명, 매출액 1000억원의 성과를 나타냈다”면서 “한우팜랜드를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 권은희,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계자 격려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 을) 의원은 14일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 “시민들의 미래자산이자 인구 200만 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기대가 저지 않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권 의원은 이날 “도시철도2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다라되고 시민들의 염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지하박스형건설공법에 시민사회의 우려를 일소하고 환경문제와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 이형석 북구발전 5대 권역별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광주 북구 을 예비후보는 14일 북구발전을 위한 5대 권역별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일곡·삼각관(교육특화지구 조성, 고압송전탑 지중화사업 마무리) ▲운암·동남권(군공항 이전 및 운암 3단지 재개발사업) ▲용봉·매곡권(용봉 IC 진출입로 해결 등) ▲건국 양산권(첨단 3지구 개발 추진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등) ▲첨단2지구(주민센터 신설, 버스노선 구축 등) 등 5대 권역별 공약을 제시했다.

### 김해정 광주 광산 갑 출마선언



민중연합당 김해정 광주 광산 갑 예비후보는 14일 4·13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광주시민들의 분노는 폭발적전인데, 야당은 구심점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면서 “국민은 절망을 넘어 정치에 환멸과 무관심을 느끼고 있다. 정치를 이대로 뒤서는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특히 “저는 재벌의 공간을 열어 99% 서민들의 미래를 바꾸겠다”며 “재벌세를 도입하고 쉬운해고금지법을 만들어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 송기석, 광주햇빛회 피해자 가족과 만남



국민의당 송기석 광주 서구 갑 예비후보는 14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광주햇빛회 사건의 피해자인 고(故) 공역석의 미망인 김선자씨를 만나 얘기를 주고받았다.

광주햇빛회 사건은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됐던 부산의 부림사건과 같이 전두환 정권 당시 전국 각지에서 조작된 공공사건으로, 피해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투옥됐다. 전직 판사 출신인 송 후보는 지난해 유죄선고를 받은 피해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이유미, 여수갑 출마 선언



국민의당 이유미 여수 갑 예비후보는 14일 “젊은 정치, 깨끗한 정치를 펼쳐나가겠다”면서 4·13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로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진심캠프에 몸담으며, ‘66일 - 안철수와 함께한 희망의 기록’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임청남(전주) 대표 이사도 한 그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변화시켜야 국민의 삶이 변화할 수 있으며, 그 시작을 여수 정치를 바꾸어 시민의 삶과 자부심을 되찾고 싶다”고 밝혔다.

### 이건태, 여성 경제활동 참여 대책 논의



국민의당 이진태 광주 서구 갑 예비후보는 14일 이춘희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장과 간담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춘희 센터장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선 경력단절 여성들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구직자 발굴에서부터 상담, 직업훈련, 취업,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행·여수=김창화·순천=김은종기자 ejkim@

# 사단법인 정통풍수지리연구학회

## 모 집

자격 관리·운영규정 제7장 제17조에 의거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에서 인정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교부

- 등급
  - 주거환경개선사 (단일급)
  - 통맥풍수지리사 (1급, 2급, 3급)
- 응시자격
  - 본학회 4학기 이상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격시험 응시가능 (년2학기 : 1학기당 15주 30시간)

- 풍수지리학 강의
  - 개 강 : 상반기 : 3월 첫주 월요일, 하반기 : 9월 첫주 월요일
  - 시 간 : 매주 월요일 17:00 부터 (2시간)
  - 과 목(내용) : 자격종별로 별도 커리큘럼 참조
- 장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280-27번지 3층 (북구청 앞, 튼튼정형외과 병원 옆)
- 문 의 : ☎ 062-511-2488, 010-3615-2488

### ■ 이사장 윤갑원 (尹甲源) 프로필

- \* 光州出生(1937年 丁丑生)
- \* 全南大學校 行政大學院 修了
- \* 前 羅州公共圖書館長(書記官) 역임
- \* 前 韓國公認仲介士協會 風水地理學班 專任講師
- \* 前 社團法人 韓國人間開發研究院 風水地理學 專任講師
- \* 前 서울경희대, 東서울대, 충북대학교, 부동산학과 風水地理學 專任講師
- \* 前 서울덕성대, 서울교육대, 대구교대, 대구가톨릭대, 충북대, 全南大, 木浦大, 順天大, 麗水大學校 平生教育院 風水地理學 專任講師
- \* 風水地理學專擔講師
- \* 現 서울, 대구, 청주, 원주, 부산, 광주 會館 매주 定期的인 現場教育 實施
- ◆ 著 書
  - 1. 道統通脈地理(宮中秘傳風水) 總整理版(改正增補 1~6 版)
  - 2. 半坪의 眞理(통맥풍수지리학 입문서)(改正增補 1~5 版)
- ◆ “선조합동묘(先祖合同墓)” 장법(葬法), 천개(天蓋)용 “봉판(棚板)”
- ◆ 홈페이지 : http://tmps.kr 또는 “통맥풍수” 를 치세요. e-mail : insans@daum.net



이사장 윤갑원



학회장 김응국

## 제5대 이사

- 이 사 장 윤 갑 원
- 상임이사 김 응 국
- 이 사 김 종 수
- 이 사 임 태 종
- 이 사 황 정 연
- 이 사 이 중 근
- 이 사 정 병 선
- 이 사 양 동 주
- 이 사 정 태 일
- 이 사 이 미 경
- 감 사 박 석 규
- 감 사 김 영 희
- 사무국장 윤 인 성
- 총 무 조 복